

# “가족과 함께 별 보요” 충남 서산에 들어서는 ‘밤하늘 산책원’

2024년 완공...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연계한 천문테마 관광시설



1



1 별마루 전망대 은하수 마루 예시도 2, 3 밤하늘 천문영상관 예시도

충남 서산의 아름다운 하늘을 테마로 한 천문과학을 가족과 쉽게 배우고 즐기는 관광시설 ‘밤하늘 산책원’이 인지면 애정리 일원에 2024년 들어선다.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밤하늘 산책원 설계비로 국비 3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

밤하늘 산책원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우주의 넓고 큰 꿈을 심고 가족과 함께 천문과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시설이다. 시는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과 연계해 인지면 애정리 151-22번지 일원 1만7천여㎡에 약 170억 원을 들여 천문테마공원, 별자리 캠핑장, 금헌 별마루 전망대, 천문산책로, 밤하늘 천문영상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힐링 관광, 체류형 야간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천문테마공원은 국보인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태양계 테마의 체험공간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원, 태양계 정원, 야외무대 등으로 구성되며 별자리 교육과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별자리 캠핑장은 돔 형태의 캠핑 시설로 가족과 함께 천문 관측과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금헌 별마루 전망대는 별자리·은하수·유성우 등을 관찰하는 공간이다.

테마공원과 전망대를 잇는 천문산책로는 천문해설을 들으며 야간에 산책할 수 있고, 밤하늘 천문영상관은 벽면 및 천장 곡면 스크린 등 디지털을 통한 천문관측이 가능한 곳이다.

시는 재작년에 밤하늘 산책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3월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한 상태다.

정부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시설계획을 하고 토지매입 등의 절차 수행 후 2023년부터 단계별로 조성해 2024년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우주의 넓고 큰 꿈을 심어줄 공간을 짓게 돼 기쁘다”며 “서산의 밤하늘을 가족들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